

전통시장서 추석 장보고 환급 받으세요

15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농축산물 광주 5곳·전남 6곳 등
농·축·수산물 구매시 최대 30%

추석을 앞두고 광주 양동시장에서 농·수·축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3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대인시장에서는 이같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열리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5일까지 고물가로 인한 장바구니 부담 완화 및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1인당 농·축산물 2만원, 수산물 2만원 한도로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각 전통시장 내 마련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판매 품목별로 농·축산물 전통시장 120개소, 수산물 전통시장 114개소가 참여하며, 광주에서는 양동·무등·말바우·남광주·월곡시장 등 5개 전통시장이 해당된다. 전남의 경우 목포 동부·청호·중앙식료시장, 광양 중마·매일시장, 함평 천지전통시장 등 6개 전통시장이 행사에 참여한다. 수산물 시장으로는 광주 양동·남광주·서부농수

산물도매·월곡시장 등 4곳, 전남에서는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여수수산물시장, 광양중마시장, 광영상설시장, 함평 천지전통시장, 해남매일시장, 목포동부시장 등 7곳이다. 해당 행사에 참여한 전통시장에서는 농·축·수산물 구매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과 농축상품권을 기존 가격보다 20~30% 할인 판매한다. 농축상품권은 최대 10만원까지, 수산대전상품권은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전통시장 할인행사는 모바일 기기 사용에 익숙치 않은 고령자 등의 편의를 위해 농축상품권 고령층 전용판매 기간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논둑이 자경(自耕) 여부 판단 기준?

농업 환경 변화 맞춰 공익직불제 등 현실적으로 적용해야

논둑은 논 가장자리에 높고 길게 쌓아 올린 방죽을 말한다. 논과 논 사이에 약간 낮은 흩더미를 쌓아 두는 것인데 '논두렁'이라고도 불린다. 논물을 가두는 둑이자 농부의 이동로인 논둑은 이 외에도 농지 소유권의 경계선 기능도 한다. 이에 따라 논둑 보수나 제조작업의 기준 선이기도 했다. 지금이야 기계가 좋아 소유에 상관하지 않고 제조작업에 나서지만, 모두가 힘들고 바빴던 예전에는 마음이 여의치 않아 내 구역 내 구역 나눠 작업하곤 했다.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관례상 큰 고랑을 기준으로 왼쪽 논둑을 자신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고랑을 기준으로 왼쪽 둑은 자신이 책임지고, 오른쪽은 옆 소유자가 맡는 것이다.

수로를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이웃 농지 등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항목은 논둑의 경우 경계를 논둑 여부로만 판단한다. 소규모 논을 합쳐 실제로 벼농사를 짓고, 두 논의 경계를 노끈 등으로 표시하거나 고랑을 파 구분해도 한쪽 논둑이라도 없으면 준수사항 위반이 된다. 논둑이 자경(自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논이라도 논둑이 모두 있어야 논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된 것으로 본다. 이는 논관원 측의 설명이다. '자경'이란 사전적 의미로 '자기 스스로 논밭을 갈아 농사를 지음'을 뜻하니, 논둑을 헐어 논을 합치는 이유를 누군가는 직접 농사를 안 짓기 위해서라고 판단하는 게 틀린 건 아닐 것이다.

최근에는 필요에 따라 객토나 성토 등이 성행하면서 논둑이 물을 가두는 등 기능적 차원보다는 소유권 구분을 위한 경계(선)로 의미가 주목 받고 있다. 작업 완료 시 정확한 측량을 통해 논을 고르고 내 땅 내 땅을 구분해 표시하는 기준점으로 말이다. 이때 서로 합의하고 모든 일이 깔끔하게 정리되면 좋겠지만, 땅(자산)을 두고 다투는 문제가 종종 갈등을 빚기 마련이다.

다만, 논관원의 이러한 입장은 농촌의 상황을 간과한 탁상행정인 것 같아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 벼농사 현장에서 엄밀한 의미의 '자경'을 하는 농민이 얼마나 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이 심화하면서 모든 농작업을 직접 하는 농가는 드문 게 현실이고, 고령 농가나 취약농가의 논을 전업농이나 비교적 젊은 농가가 농작업을 맡아서 하는 게 일반화된 지 오래다. 현실은 논둑으로 자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다. 매년 벼농사가 이뤄져 누가 봐도 논둑의 형상과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도 한쪽 논둑이 없다는 이유로 준수사항 위반으로 판정하는 게 행정 편의를 위한 발상 아니냐 되돌아봐야 한다. 농사짓는 논둑을 논둑으로 함께 고랑도 인정한다면 논과 논 사이 구분도 가능하고, 농사 편의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과 일부 농가와 벌인 논둑 논란도 이와 유사하다. 벼 농가 사이에 필요에 따라 논을 객토나 성토 했는데, 논둑을 하지 않았거나 경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관원이 공익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비 오듯 흐르는 땅으로 목욕을 하며 제조작업을 했던 힘든 기억과 좁았지만 힘차게 달리던 추억이 교차하는 논둑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무엇이 농업인을 위한 올바른 정책인지를 먼저 생각해 볼 일이다. /bigkim@kwangju.co.kr

농업경영체 등록을 따온 경우 소규모 논이라도 논둑을 헐어 합쳐 농사를 지으면 이행 준수사항 가운데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위반이 되어 공익직불금 지급에 제한을 두는데, 이게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공익직불제 17가지 준수사항 가운데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는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1년 이상 경운 ▲이웃 농지 등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관리 ▲논농업에 이용되는 논지는 농지 주변의 용수로·배



쌀값 안정화 대책 논의...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과 고흥·보성·장흥·강진군 농민회 간담회가 지난 7일 강진군 연락사무소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쌀값 안정화 대책, 농업생산비 폭증에 따른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 기후위기에 따른 농작물 피해보상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문금주 의원실 제공>

aT, 올해 추석 차례상 상차림 비용 20만9494원

지난해 대비 1.6% ↑ ... 물가협회가 발표한 비용보다 27% 저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올해 추석 성수품 물가를 반영한 차례상 차림 비용이 지난해 추석보다 1.6% 오른 20만 9494원으로 집계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지난달 말 한국물가협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보다는 27~30%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을 조사한 결과 올해는 평균 20만 9494원으로 전년 대비 1.6% 소폭 상승했다. 이는 지난달 한국물가협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각각 발표한 차례상 차림 비용인 28만

7100원, 29만 8313원보다 27.0%, 29.8% 저렴한 수준이다. 이처럼 추석 상차림 비용이 단계별로 다른 결과를 낸 것은 조사 품목 수가 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aT는 지난 6일 전국 23개 지역의 16개 전통시장과 34개의 대형유통업체에서 추석 성수품 24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반면, 한국물가협회는 전국 전통시장 28개에서 28개 품목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국 전통시장 37곳에서 27개 품목을 조사했다. aT는 업체별로 전통시장이 19만 4712원, 대형

유통업체가 21만 6450원으로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10% 저렴했다. 품목별로는 사과와 배가 평년보다는 여전히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지만, 지난 8월 수확을 거쳐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어 이상기후로 공급량이 급감했던 지난해보다는 가격이 각각 13.1%, 10.4% 하락했다. 이밖에 계란 가격이 6.0% 내렸고, 동태(-3.7%), 밀가루(-6.8%), 청주(-4.3%) 등이 하락했다. 업체별로는 전체 24개 중 14개 품목이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이 저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정부와 대형마트가 연계해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할인하고 있는 사과, 배, 조기 등은 대형유통업체가 최대 60% 더 저렴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한국농어촌공사, 윤리·인권 주간 운영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13일까지 전사적인 '윤리·인권 주간'을 운영한다. 공사는 기존 매년 하루 실시하던 '윤리의 날'을 지난해 처음으로 확대 시행해 올해 2번째 윤리·인권 주간을 진행한다. 올해 윤리·인권 주간에는 선포식을 시작으로 ▲조직문화 향상 토론회 ▲윤리·인권 영화 상영 및 특강 ▲청렴·갑질 수준 자가 진단(클린온도

계)·퀴즈 ▲반부패·청렴 교육 등 윤리·인권 경영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경영진과 노동조합, 감사 주관 부서 등 임직원이 합동으로 '윤리·인권 경영 현판식'을 개최해 공사 전 임직원이 청렴 윤리와 인권 존중의식을 적극 갖추겠다는 의지를 선포할 계획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